

VOL. 24

OKINAWA JOURNAL

since 2009 BY RYUKYU CONSULTING





**가족 외식.** 와이프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집 근처 호텔에서 점심 먹기. 다행히 태풍 11호가 오키나와를 빙거가면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즐거운 점심을 즐길 수 있었다. 색다른 외출에 아이들도 기뻐하고 생일을 맞이하신 만삭의 와이프님과도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



마트에서 파는 디저트 케이크로 대신한 생일케익.  
케이크가 필요 없다는 와이프를 설득해 그나마 마트  
에서 맛있는 디저트 케익을 사서 초도 이전에 사용  
했던 것을 재활용 하기. 생일 축하해~



강력한 태풍 11호가 올라온다고 해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오키나와 본섬을 오른쪽으로 빙거 일본 본토 쪽으로 올라갔다. 덕분에 날씨는 오히려 바람불어 시원한 오키나와.

GOOD MORNING





A BANQUET NOODLE?

더운 날 색다른 음식이 없을까  
생각하다 만들어 먹은 찬  
치국수. 후루룩 짹짹 맛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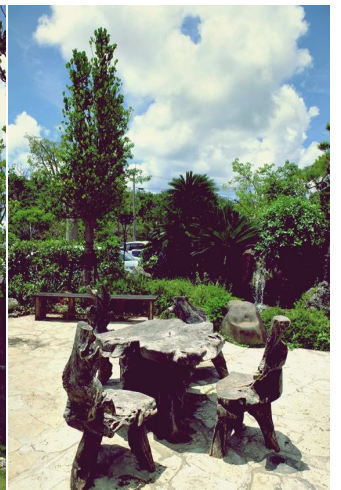


기와집 고민가들이 매력적인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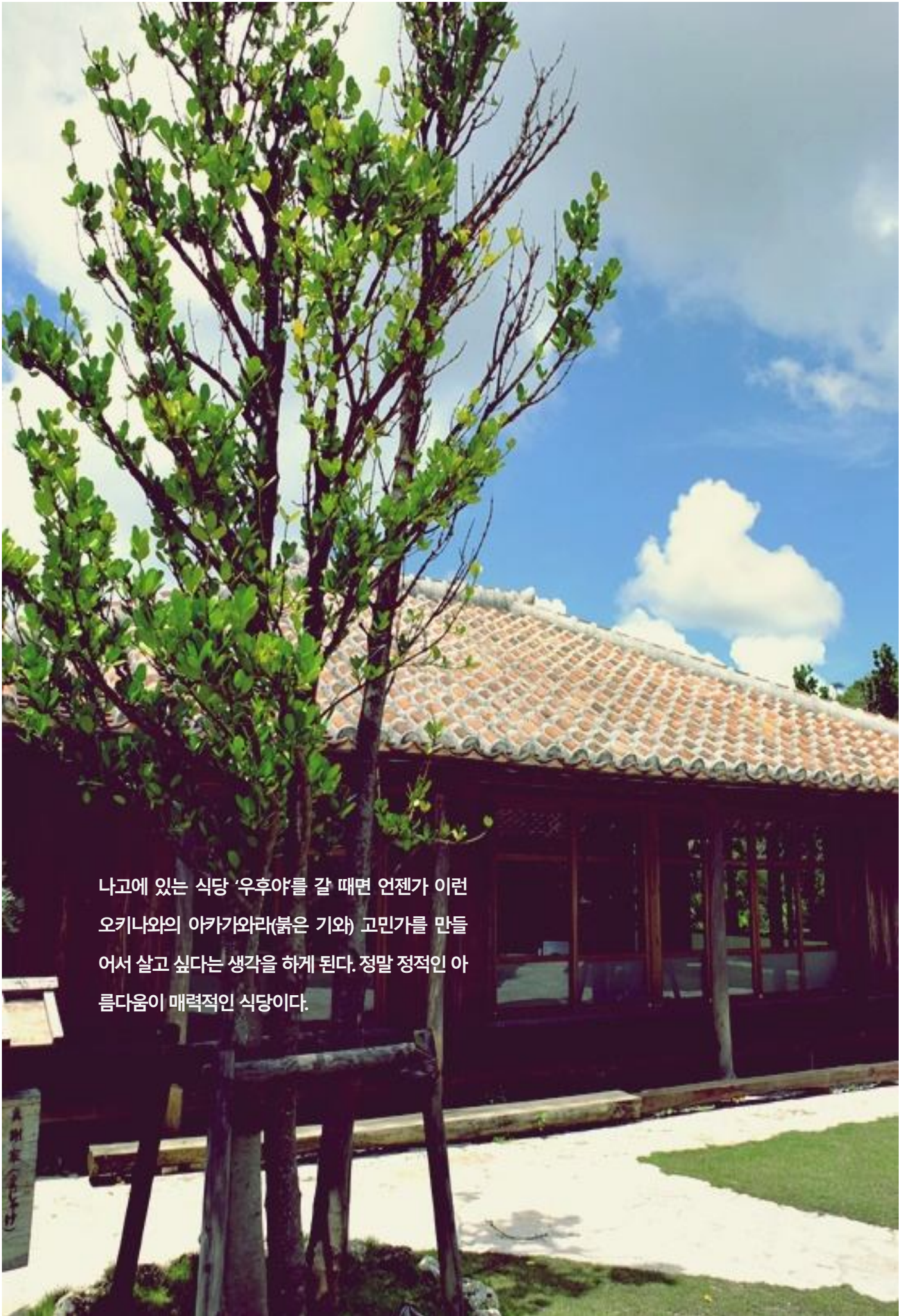
# 大家 우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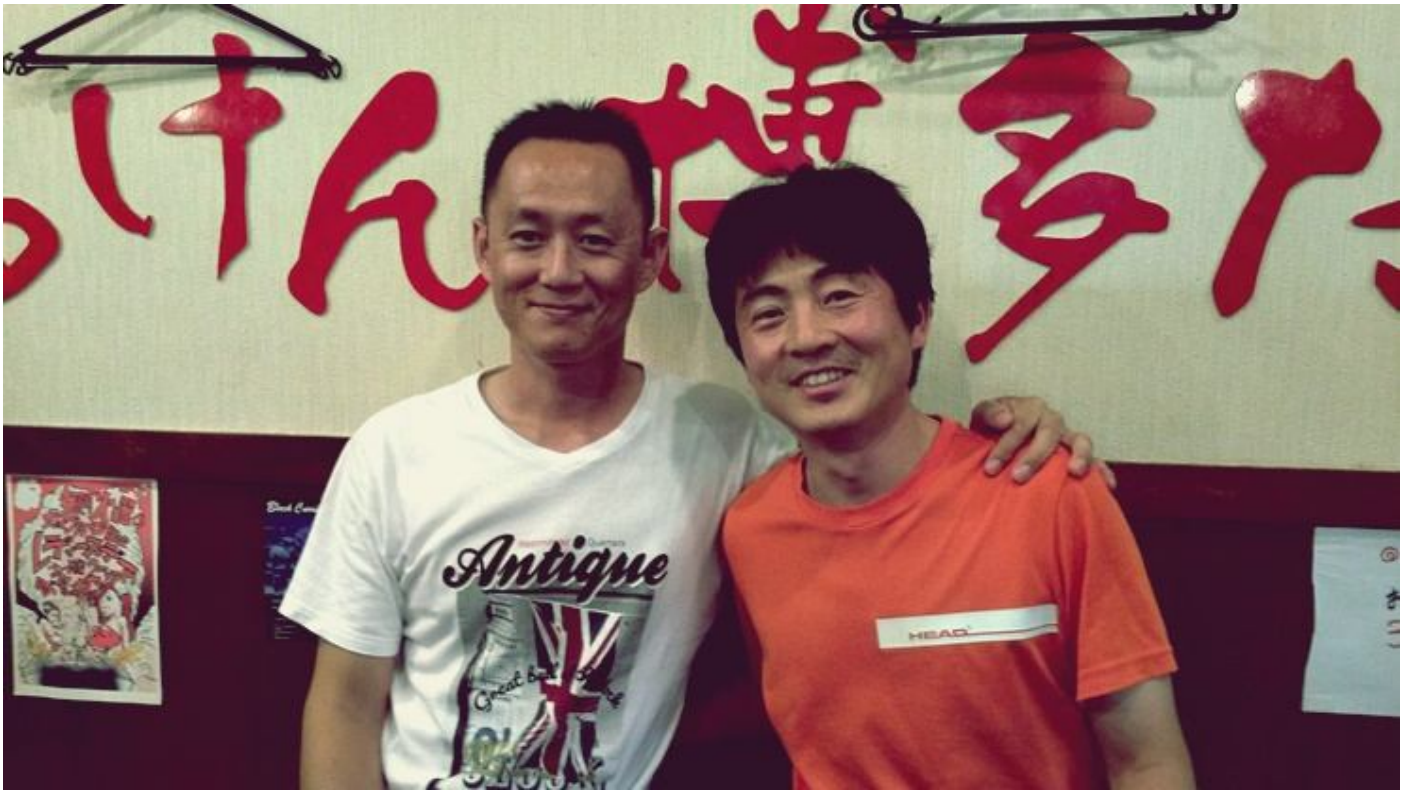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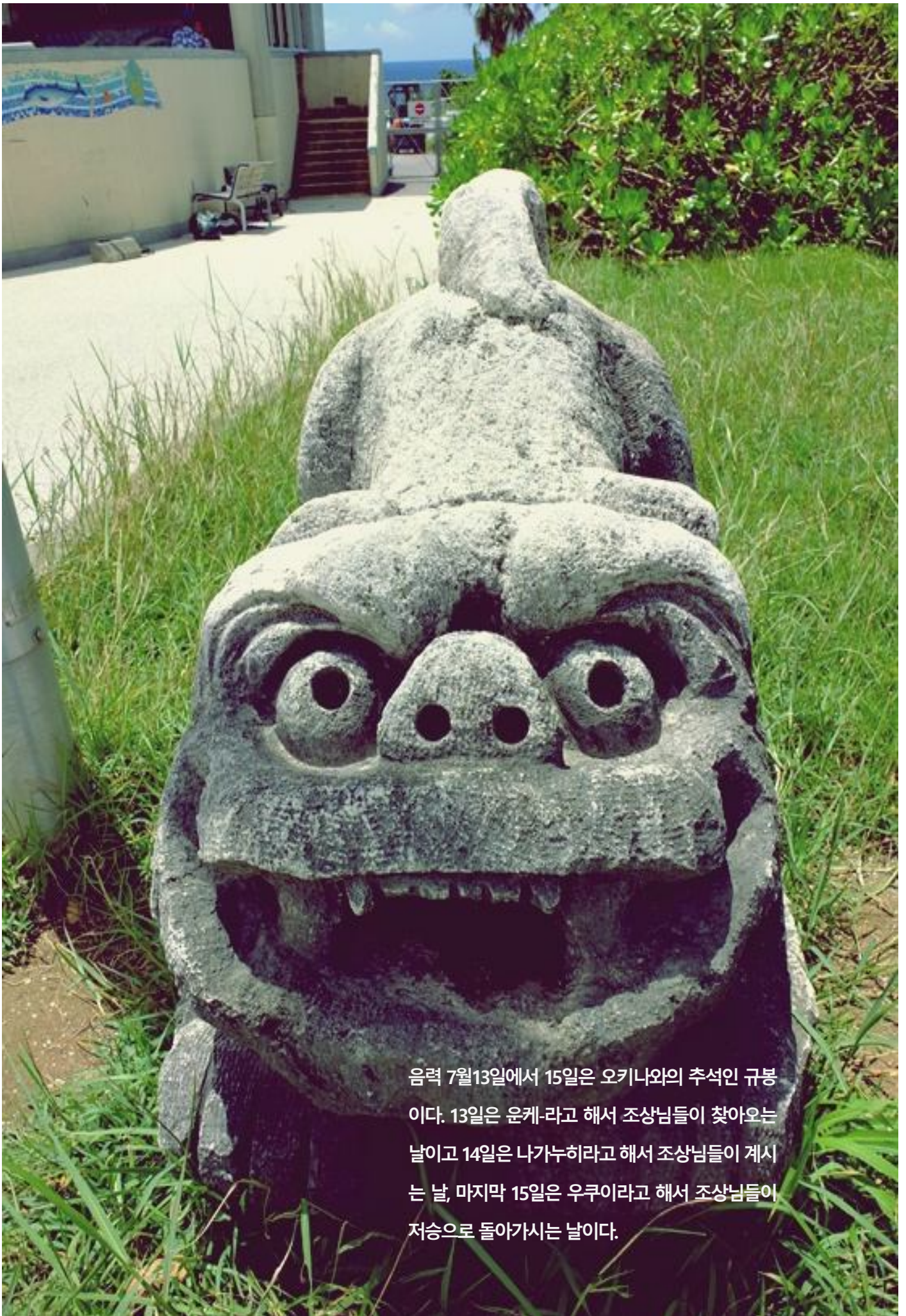


나고에 있는 식당 '우후야'를 갈 때면 언젠가 이런  
오키나와의 아카가와라(붉은 기와) 고민가를 만들  
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정적인 아  
름다움이 매력적인 식당이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술 한잔. 한국에서 마라톤 감독을 하고 있는 친구가 휴가 차 오키나와에 왔다. 오키나와 와이프를 둔 친구로 가족은 오키나와에 남겨 두고 혼자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추석인 규봉의 나가누히 저녁 한국사람들끼리 모여 이런 저런 삶의 수다들을 떨어 본다.






음력 7월13일에서 15일은 오키나와의 추석인 규봉  
이다. 13일은 운케라고 해서 조상님들이 찾아오는  
날이고 14일은 나가누히라고 해서 조상님들이 계시  
는 날, 마지막 15일은 우쿠이라고 해서 조상님들이  
저승으로 돌아가시는 날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노을 지는 석양을 감상하기에 좋은

# 매리어트 리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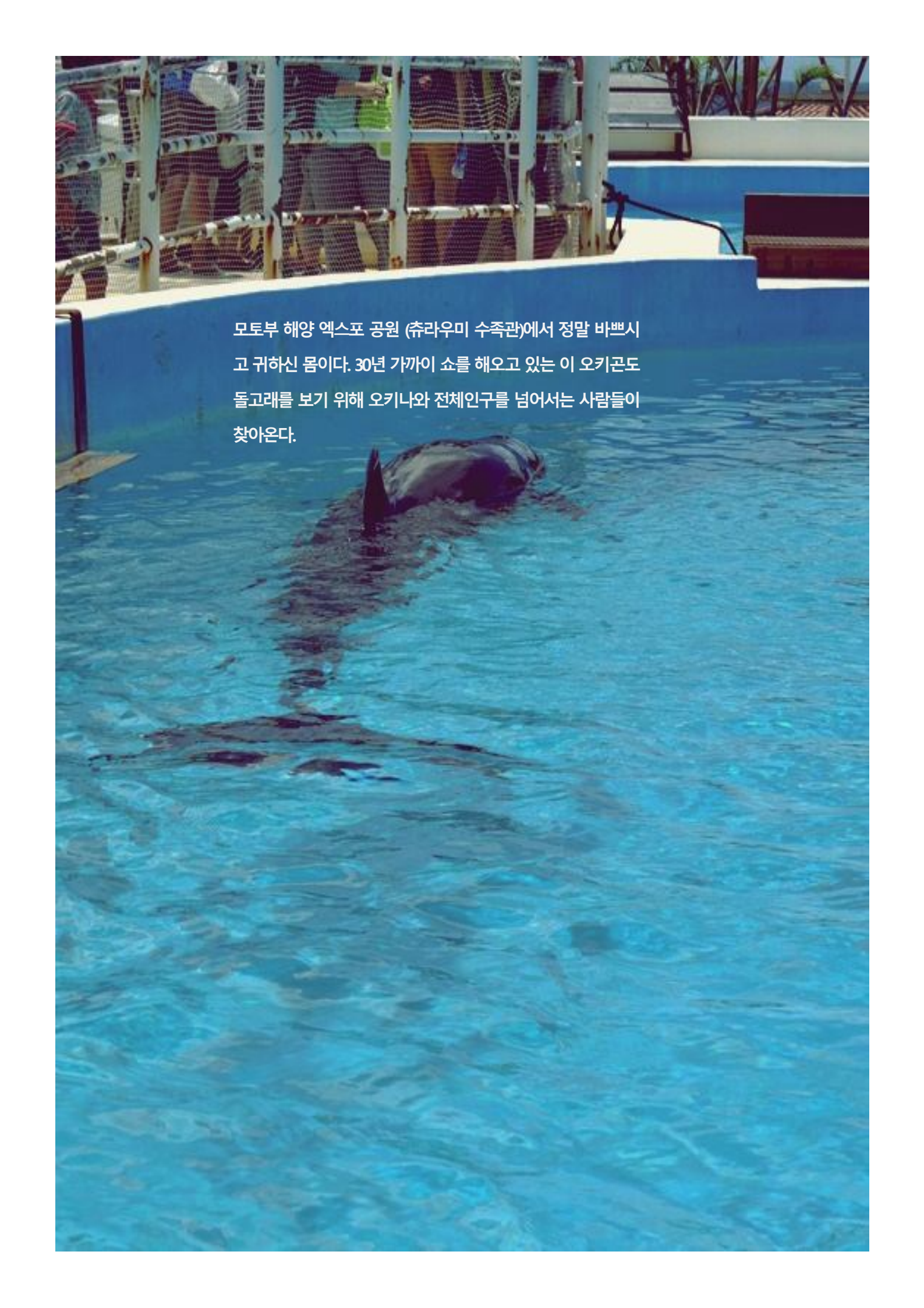


A photograph of a person sitting at a desk in a dimly lit room, likely a hotel. The person is holding a document and looking at it. On the desk, there is a laptop displaying a colorful abstract image, a glass of beer, and a pair of glasses. A lamp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desk, casting a warm glow. The background shows a hallway with a door and a light fixture.


일 때문에 숙박을 하게 된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은 매점에서 좋아하는 아사히 맥주 캔 두 개 사서 다운 받아 놓은 영화를 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모토부 추라우미 수족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언제나  
봐도 이쁘다. 산호와 리프의 경계선이 가르스 바다색의  
차이. 푸른 바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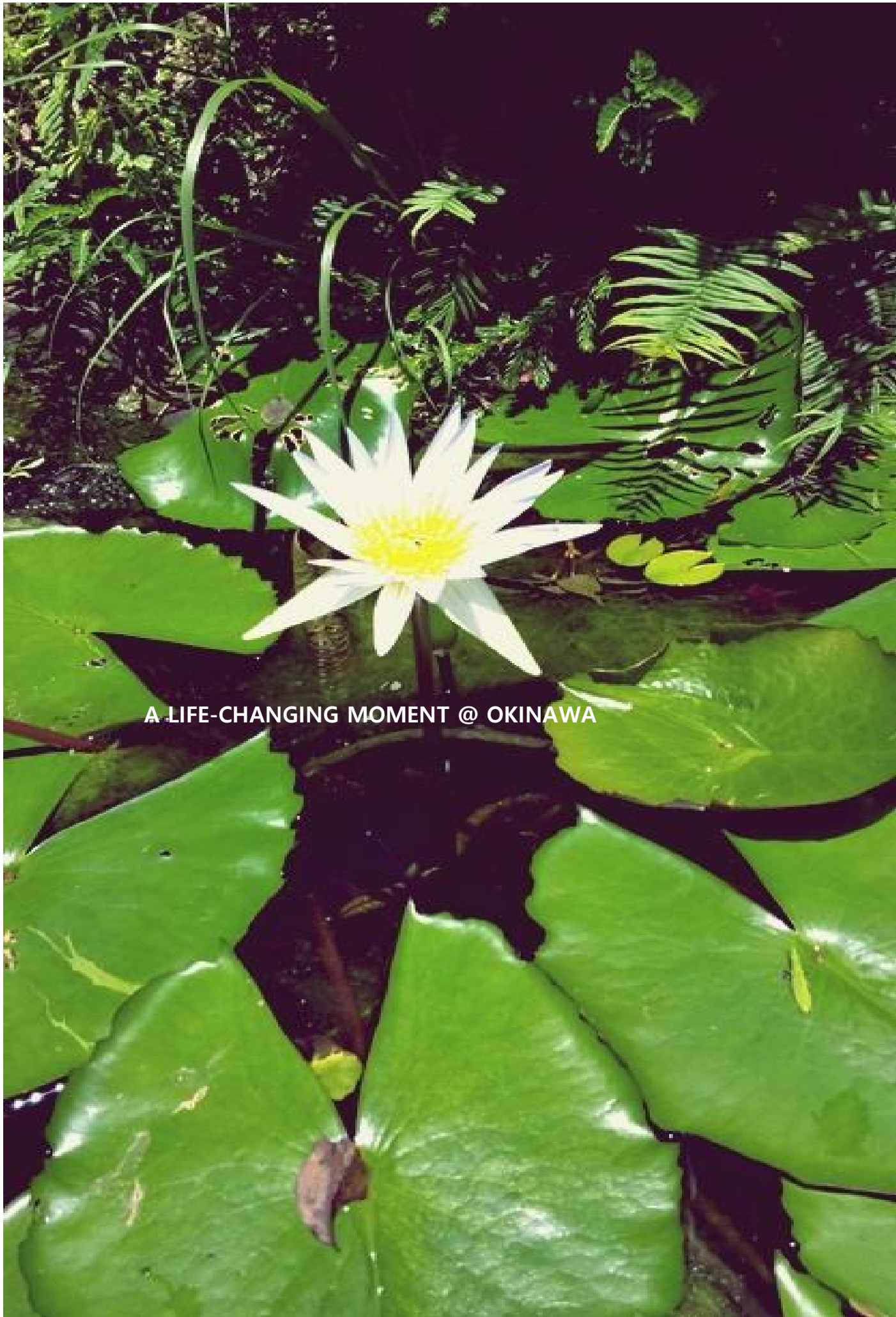


모토부 해양 엑스포 공원 (츄라우미 수족관)에서 정말 바쁘시고 귀하신 몸이다. 30년 가까이 쇼를 해오고 있는 이 오키콘도 돌고래를 보기 위해 오키나와 전체인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화장실 쓰레빠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래봐도 메이드인 재팬이다. 시마조오리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녀석으로 바닷가에 갔을 때 신으면 정말 편하다.





A LIFE-CHANGING MOMENT @ OKINAWA